

■ 2010년도 임원 ■

고문 : 구자경 장영신  
 회장 : 도춘호  
 차기회장 : 김낙중  
 부회장 : 이억균(총무) 최동훈(기획) 이남수(학술)  
 윤웅 찬(홍보) 이규양(산학협력)  
 김강진· 김기문· 김원호· 장종현(재무)  
 홍태기(홈페이지) 박수진(재무)  
 우회편(e-News Letter) 도입자(교육)  
 김정희(회원) 박병욱(산업)

이사 명단: 도춘호, 이억균, 최동훈, 이남수, 이규양, 윤웅찬, 김강진, 김기문, 김정희, 도입자, 박수진, 우회편, 홍태기, 정박우, 김낙중, 여인형, 김용록, 윤민중, 조정혁, 손정인, 손용근, 박형현, 안병준, 박정학, 신동수, 류준하, 조양래, 성익경, 김형래, 강영기, 전철호, 김영인, 최중권, 박종상, 정문석, 고�광윤, 도영규, 유영석, 현명호, 이윤섭

감사: 윤경병 한인숙

실무이사:

총무: 장락우, 여운석; 기획: 조병기, 장우동  
 학술: 김태현, 최철호; 산학협력: 정택모, 홍인석  
 홍보: 정옥상, 이진용, 김태규, 이화심; 재무: 이정오  
 회원: 고원배; 교육: 최우용 이기석, 황성용  
 홈페이지: 이영훈  
 e-News Letter: 손흥래 · 조성준 · 한재량 · 류 설

지부장 및 지회장 : 손정인(강원), 손용근(경기), 박형권(광주, 전남), 김형래(대전충남), 강영기(충북), 안병준(전북), 박정학(대구, 경북), 신동수(경남), 류준하(부산, 조양래(울산), 성익경(인천, 김원형(제주지회), 최진환(여천지회)

분과회장: 조창기(고분지화학), 김훈식(공업화학), 김영인(무기화학), 선호성(물리화학), 박용남(분석화학), 박종상(생명화학), 전철호(유기화학, 최중권(약화학), 김성진(재료화학, 이치우(전기화학, 서인호(초중등교사), 이대형(화학교육), 정문석(환경화학)

위원장: 정봉영(기금), 최진호(학술), 도영규(국제협력), 고풍윤(화학술어), 유영숙(여성), 이순보(연구윤리), 이창희(출판), 김학진(화학올림피아드), 박호근(화학발전사업), 황성주(기념품사업), 최정훈(키트개발사업), 백성혜(화학교육및홍보), 최병순(화학교육개선사업), 박승민(화학전공학위인증), 이강봉(화학기술진흥; 화학기기와 화학제품인증), 현명호(대한화학지편집), 이윤섭(Bulletin편집), 한인숙(화학교육편집), 윤웅찬(화학세계편집), 김명수(2015년 IUPAC 총회조직), 김낙중(2011년 세계화학의해준비)

사무국: 전화: 02-953-2095

이메일: webmaster@kcsnet.or.kr

팩스: 02-953-2093

박종선(웹서버), 박수연(대한화학지)

김해진(회계, 회원), 한성희(화학올림피아드, 광고)

곽현영(Bulletin지), 진수경(화학세계, 화학교육)

차년도 대한민국의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그 예산안의 법정 기간 내에 국회 통과 건으로 집권여당과 야당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는 지금의 신문과 TV 뉴스를 접하고 있으니 새로운 희망으로 시작했던 한해가 지나가고 또 새로운 한해의 시작점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우리 대한화학회도 내년 2011년의 예산안이 지난 10월 대구에서 열린 대한화학회 제106회 총회 및 학술대회에서 승인되어 새로운 도약을 위한 내년의 준비를 하고 있다.

올해 발간된 2010년 화학세계는 새로운 포맷의 모양과 내용으로 여러 회원들의 눈길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화학세계의 주인이며 독자인 대한화학회 회원들의 사랑을 많이 받기는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나 우리 홍보 실무이사들, 전문위원들을 포함한 여러분들이 새로 준비된 화학세계 발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니 회원 여러분들이 화학세계지로부터 기대하는 많은 것 중 조그마한 일부나마 만족을 드릴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지난 10월 대구에서 열린 추계 대한화학회 추계에는 등록인원 2,500여 명, 총 1,600여 편의 발표가 있어 인천 춘계 학회와 비슷하게 매우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잡혀진 통계가 보여주고 있어 커져가는 우리 대한화학회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학회의 대표 저널인 *Bull. Korean Chem. Soc., 대한화학회지, 화학교육지* 등의 발간에서도 크게 증가된 학회 회원들의 연구 능력과 열성이 녹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대한화학회지의 SCIE 예로의 등록을 위한 노력과 긴 기다림이 있었으나 그 기대를 얻지 못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올해 이루지 못한 아쉬움과 새로운 바람은 새로운 팀원들의 분투와 노력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믿으며 지난 일 년 이상 노심초사 화학세계 원고 준비를 쉬지 않고 챙겨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홍보팀 실무이사의 책임을 맡아 수행해주신 정옥상, 이진용, 김태규 교수, 이화심 박사, 화학세계를 새로운 모양으로 탄생시키고 최종적으로 회원들에게 늦지 않게 도착하도록 노력해주신 진수경 대리,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교육계 소식을 보내주신 김현경 박사님, 많은 원고를 준비하여 주신 여러 전문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늦가을 산과 들은 아름다운 단풍으로 우리들의 아쉬운 마음을 달래주고 있으나 아름다운 마무리의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화학회의 크나 큰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009년 화학세계 마지막 호의 발간에 즈음하여...

화학세계 편집위원장 윤웅찬  
 2010 편집위원회